새천년의 주민복지를 위한 커뮤니티 센터의 활동프로그램 제안

A Study on the Activity Programs at Community Center for Citizens' Welfare toward New Millennium

건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교수 권 오 정
우석대학교 의상·주택학부
교 수 곽 인 숙
중앙대학교 생활환경정보학과
교 수 이 경 희
인천대학교 생활과학부
교 수 최 재 순

Dept. of Consumer Science & Housing, KonKuk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Kwon, Oh-Jung
Division of Clothing & Housing Design, WooSuk University
Professor : Kwak, In-Sook
Dept. of Human Environment and Information Services, ChungAng University
Professor : Rhee, Kyung-Hee
Division of Human Ecology, InCheon University
Professor : Choi, Jae-Soon

목 차

Ⅰ. 서 론
Ⅱ. 기존 커뮤니티 관련시설
Ⅲ. 커뮤니티 센터의 활동프로그램 제안
Ⅳ.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Recently, the demand for public welfare has been expended to the comprehensive services in terms of cultural, medical and psychological aspects and provision of information. These various demands for welfare services to improve citizens' quality of life could be effectively met by an integrated community center covered small regions rather than many existing individual institutions focused on specific services covered wide

regi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activity programs for a proposed new millennium community center. The activity programs classified into five types (administrative services; information and counselling; health and sports; leisure and culture; and child care and educational services) and each type included various unique activity programs not only for specific age groups but also for all age groups. In order to operate a new millennium community center effectively, the legal supports and systematic organizations to manage the community center should be required. Discussions and recommendations for these issues were included in the study.

주제어(Key Words): 커뮤니티(community), 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 활동프로그램(activity programs), 새천년(new millennium), 복지(welfare)

I. 서 론

21세기를 맞이하여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져 가고 있다. 시민들은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보다는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보, 문화, 여가, 건강, 교육, 행정 등 개인과 가족의 발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주민생활의 편의와 복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는 이미 다양한 커뮤니티 관련시설[1]들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복지 서비스 공급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시설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a, b).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커뮤니티 관련시설들의 대다수가 그 복지 서비스 대상을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청소년등 특정계층에 한정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커뮤니티 관련시설들의 소관 부처가 다양하여 개별시설간의 연계성이 떨어져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중복도 많고 이로 인한 프로그램 이용률의 저조와 재원의 손실도 발생하고 있다(김영석, 1999;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a, 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즉 기존의 커뮤니티 관련시설들은 주민 대다수의 다양하고 변화하는 욕구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서비스의 전달 체계가 미비하여 연령, 성별, 경제능력 등 개인이 갖고있는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욕구와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현재의 커뮤니티 관련시설로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단위, 즉 소생활권 내지 중생활권 단위로 주민의 정보, 문화, 여가, 건강, 교육, 행정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는 통합적인 시설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통합적인 시설은 가족단위 또는 다양한 계층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해 계층간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 의식을 고양하는 근린 지역사회의 중심지로서 주민들이 가장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만남의 장(場)이 되어야한다. 또한 통합적인 시설은 기존의 커뮤니티 관련시설들과 같이 독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한곳에서 한번 방문으로 다양한 서비스(one-stop all services)를 제공함으로서 주민이용과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지역주민이용시설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 개념의 커뮤니티 관련시설을 "뉴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이후 "커뮤니티 센터"라 함)라고 칭하고 바람직한 커뮤니티 센

1) 커뮤니티 관련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지역주민 이용시설을 총칭하는 것으로 구민회관, 공공문화센터, 복지회관, 청소년회관과 기타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주택단지를 중심으로하는 각종 근린시설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시설들은 주로 행정, 여가, 교육, 사회복지, 보건, 유통의 기능을 수행한다.

터의 개발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국내의 커뮤니티 관련시설의 종류와 구조, 설치 근거법, 운영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의 현황과 문제점등을 파악한다. 또한 커뮤니티 관련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외국의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에 대한 현장조사[2]를 통해 새천년을 위한 미래의 주민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의 활동 프로그램(Activity Programs)을 기능별/계층별로 유형화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II. 기존 커뮤니티 관련시설

1. 커뮤니티 센터의 개념

커뮤니티 센터에 관련된 정의로서 이연숙(2000)의 연구에서는 『공유공간은 아파트 주거단지내 주민들의 생활 복지에서 문화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적을 자체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주민 공동의 공간으로, 주민들이 사용권, 소유권, 영역권을 가지는 반공적(半公的)·반사적(半私的) 영역의 개념이다. 이는 각 세대의 단위주택 외에 별도로 제공되는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질적인 시설과 서비스 프로그램이 운영될 것이 전제된다. 현재의 근린생활시설들과 비교할 때 영리보다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 복리차원의 공간이다. 공유공간은 주민들이 일상생활권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근접성이 전제되며, 시별, 구별, 동별로 하나정도 그리고 분산되어 있는 현 복지시설과는 달리 모든 소생활권 내의 주거단지 혹은 주거지역 단위별로 다양한 기능의 공간들이 커뮤니티 센터라는 이름으로 모여 제공될 수 있는 시설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커뮤니티 센터란 다양한 유형의 공유공간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건물형태 혹은 집합적 형태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최찬환(2000)의 연구에서는 『산업화의 전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경제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얻어진 부분적인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정신적인 안정의 추구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적인 수요의 증대 및 자발적인 주민의 참여를 통한 능동적인 문화의 형태로 바뀌어 점차적으로 각 계층으로 확대되어 조성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사회 문화적 요구 및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물의 확보가 지역사회에 문제로 떠올려지고 있다. 이러한 공간의 확보는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의 확보로서 해결될 수 있다. 커뮤니티시설이라 함은, 지역사회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문화생활의 중심이 되는 시설로 지역간의 격차가 없는 충분한 시설이 확보되어야만 한다. 이 커뮤니티시설은 각 시나 군 단위의 구민회관, 공공문화센터, 복지회관, 청소년회관 및 기타 문화행사 등을 행할 수 있는 문화시설로 분류되어질 수 있으며, 각 공동주택 내에 있는 복리시설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공유공간은 문화공간의 형성 및 커뮤니티의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적인 기능 수용이 가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보다 커뮤니티 센터가 일찍 발달된 미국의 경우, 다목적 센터(Multiservice Center), 근린센터(Neighborhood Center),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 등으로 불리우는 시설들이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전 연령층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고, 교육, 여가, 문화, 체육, 그 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실행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기본적인 서비스의 골격은 시설마다 유사

2) 본 논문에서 제안될 활동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연구내용과 방법에 의해 개발되었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커뮤니티 관련시설 설치근거법, 시설기준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한다; 둘째, 현장조사로서 서울의 아파트단지지역으로 목동을, 단독주택지역으로는 마포구 성산동, 망원동을 선정하여 행정서비스시설, 지역복지시설, 공공서비스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커뮤니티 관련시설의 건축환경 조사와 운영자 면담을 통한 프로그램 조사,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설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 영국, 일본의 커뮤니티 관련시설에 대하여 운영되고 있는 활동프로그램의 현황을 조사한다; 셋째, 위에서 정리된 내용들을 종합하여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가능한 활동프로그램을 제안한다.

하나 그 세부 내용과 진행방식은 그 지역사회의 특성(소득 계층, 가족생활주기, 지역사회 규모, 주민의 수요 특성 등)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영국의 커뮤니티 센터는 성인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활동장소 제공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열려진 공간이다. 커뮤니티 센터를 지역문화시설로 개방함으로써 청소년과 지역주민, 가족단위의 문화활동을 통합시키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일본의 커뮤니티 센터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집회실과 같은 주민공용시설과 정부의 소관 부처에서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이 있다. 주민공동시설로는 자치성계의 커뮤니티 센터, 농림 수산계의 각종 농업자용의 집회, 다목적시설, 후생성계의 복지시설, 문부성계의 중앙공민관 등의 사회교육시설이 각각의 기준을 가지고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런 시설들은 행정적으로 커뮤니티 센터를 세울 수 있는 나대지를 구하기 어렵고 재정상태의 악화, 고령자 문제, 주민의 요구도가 다양화하는데 따른 해결책으로서 최근 복합화가 추진되어 규모가 커지고 있다(伊藤, 1996).

본 연구에서의 커뮤니티 센터는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출발된 것으로 지역주민 누구에게나 생활을 지원해 주는 다양한 기초적인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며, 또한 지역주민들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의 장소(a central meeting place)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간의 접촉 증진과 공동체 의식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역사회시설을 의미한다.

2. 커뮤니티 관련시설들의 종류와 구조

커뮤니티 관련시설을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근린시설로 나누어 그 종류와 해당 법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3개시설로 구분하고, 문화공간에 해당하는 공연, 집회, 관람장 및 전시장(미술관, 박물관, 기념관, 과학관, 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동·식물원을 포함하고 있다.

2)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노인, 부녀자 등을 위한 복지관이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은 그 기능과 목적에 따라 이용시설과 수용시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복지이용시설에는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부녀청소년회관 등의 복지관과 치매센타, 노인·장애인 주간 및 단기보호소, 보육시설 등 주민이용시설이 포함된다.

3) 근린시설

근린시설을 공동주택단지 내에 설치토록 법규로서 규정한 것은 국내에서 본격적인 아파트단지 건설의 계기가 된 주택건설촉진법의 제정시 공동주택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규정이 이루어지면서부터였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시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시설의 유형 및 시설기준에 의하면 어린이놀이터, 의료시설(의원, 약국), 생활편익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문고 등 10여개의 시설을 들 수 있다.

한편 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운동시설 등을 들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제 1종 근린생활시설로는 슈퍼마켓, 일용품(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등) 소매점, 이·미용원, 일반 목욕장, 세탁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탁구장, 체육도장 등이며, 제 2종 근린생활시설로는 일반음식점,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종교집회장 등이다. 근린공공시설로는 동사무소,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과 마을공동회관, 구판장, 공동집회소등을 들 수 있으며, 노유자 시설로는 영유아보육

시설, 유치원, 노인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교육시설로는 초등학교와 도서관이 여기에 해당하며 운동시설로서는 운동장이 근린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커뮤니티 관련시설중에서 커뮤니티 센터가 갖추어야 할 기능과 밀접히 관련된 시설은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근린공공시설, 노인정, 문고, 사회복지관 등이 있다. 여기에 덧붙여 최근 동사무소의 기능이 전환되어 설치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의 집도 커뮤니티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다.

3. 계층별 커뮤니티 관련시설의 활동프로그램

기존 커뮤니티 관련시설들은 그 대상이 노인, 아동, 주부 등으로 명확히 구별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이 이외의 계층에 대해서 제공되는 공간이나 프로그램은 한정적이었다.

1) 노인

대표적인 노인복지시설로는 노인정,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복지회관 등이 있다. 이 중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은 노인정이며, 현재 100세대 이상의 단지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노인정은 노인의 건강증진, 오락, 취미활동, 작업 등을 위한 시설과 부속정원, 화장실, 급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노인의 여가활동은 범위가 다양하지 못하며 주로 가정 내 또는 가족 및 친구와 관련된 활동이 주가 되며, 노인정에서는 친구들과 대화, 바둑, 장기, 화투놀이, 남이 노는 것 구경, 라디오 청취 및 TV 시청 등으로 특별한 계획 없이 하는 활동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박근정, 1995).

또한 국내 종합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을 살펴보면 취미교실과 강당, 기타 교육실을 활용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체력훈련실, 기능회복실도 운영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7).

미국의 경우, 노인전용 센터는 사회활동과 대화 및 친교의 장소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일상사에 관한 서비스를 받고 비슷한 취미나 욕구, 희망들을 나누기 위해 함께 모이는 시설로서, 이곳에서 노인들은 같은 나이의 사람들을 만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한 노인교육훈련프로그램을 제공받거나, 문화 및 오락,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상담 및 건강보조와 건강관리, 식사를 제공받는다. 노인들을 위한 에어로빅 강좌나 그룹별 걷기운동 등이 실시된다.

일본의 경우 국가 전체적으로 고령화율이 높기 때문에 건강과 의료에 대한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다양한 커뮤니티 관련시설들은 주민 전체를 위한 건강검진과 진료가 이루어지고 원할 때 언제든지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기기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고령자 커뮤니티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데이서비스 부분의 생활지도 · 일상동작훈련 · 양호, 가정보호교실, 센터에 오고 가는 것 돕기, 상담등이 있고, 거주부분에서는 겨울에 노인이 이곳에 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이 설치된 곳도 있다.

2) 영유아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서는 근린시설로서 유치원 또는 탁아시설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왔다.

현행 보육시설 기준은 500세대 이상 단지에 30인 이상의 보육시설 1개소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단지 규모별로 별도의 추가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500세대 단지나 2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나 동일한 규모의 보육시설이 설치될 여지도 있다.

국토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1996)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의 경우 공동주택단지내 시간제 탁아공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고, 가정주부의 여가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단지 내 탁아공간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동주택단지 내 요구되는 영유아 시설로는 정기적 보육, 교육기관으로 활용되는 기존의 어린이집, 유치원과 더불어 시간제 탁아공간이 요구되며, 어린이 보육, 교육, 유희, 낮잠, 옥외놀이 등의 프로그램이 바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탁아서비스이다.

미국과 영국의 커뮤니티 시설들에서도 공통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탁아서비스이다.

3) 아동

현재 공동주택단지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에서는 아동전용의 공간을 근린시설로서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직장을 다니는 부모를 위해 자녀들의 수업전이나 방과후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before and after school care)을 제공하기도 하며, 특히 여름 기간에는 거의 모든 커뮤니티 센터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과 운동, 창작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아동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실시한다. 연령대별로 어린이 캠프를 세분화하여 운영하거나, 독서, 여가, 공예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국의 커뮤니티 센터의 체육관은 시간대(오전/오후)별로 연령층을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오후 시간대에 방과 후 아동들을 위한 가벼운 운동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

4) 청소년

아동시설과 마찬가지로 기존 공동주택단지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전용 근린시설이 규정되지 않다. 미국의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여름 기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 캠프를 개최하거나 체육, 수공,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거나, 봄부터 여름까지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축구, 농구, 골프, 테니스, 미식축구 등의 야외스포츠를 운영한다.

영국의 커뮤니티 센터의 체육관은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방과후에 이곳에 와서 무료로 태권도라든가 당수, 일본의 가라데와 같은 동양의 체육종목강습과 그 외에 농구, 배드민턴과 같은 실내운동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운동을 즐기기 때문에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나 컴퓨터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거나, 이들의 춤이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한다.

5) 성인

기존 커뮤니티 관련시설은 취업여부나 결혼여부, 성별 등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고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성인들에게 교육강좌 개설, 체력단련, 문화, 여가활동, 각종 워크샵 등을 개설하여 일상생활의 즐거움과 활력을 주고 재능을 개발하고 흥미를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개설하고 있다.

6) 전 연령층(공통) 거주자

전 연령층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로는 문고,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등이 있다. 문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94년 이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설치기준은 1,000권 이상의 책을 보유하고 6인 이상이 독서할 수 있는 좌석을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문고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지역도서관처럼 공동이 별도로 건립하여 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공동시설이란 도서실,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 종교활동, 가정의례 또는 부녀회 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주민운동시설은 1973년 7월 주택 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최소규모단지 500세대 공동주택단지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근린시설로서 배드민턴, 배구, 농구장, 정구장 중 1개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1999년 개정에 의하면 시설의 종류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42개 종목의 실외체육시설 중에서 1개소를 설치하도록 개정되었다.

공동주택 입주가구에게 체육활동을 위한 외부 시설물의 이용비용은 부담스러운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은 단지 내에 저렴하고 충분한 운동시설이 마련될 경우 대부분 정기적인 이용을 희망하고 있다.

외국의 예에서는 실외체육시설이외에 체력단련실의 용도로 복합 용도의 실내체육실을 마련하고 이

곳에서 어린이체조, 에어로빅, 헬스등의 운동프로그램과 때로는 각종 행사용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긴요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 예를들어, 영국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빠지지 않는 시설이 체육관인데 이 체육관에서 오전에는 유아와 부모가 함께 하는 율동놀이나 가벼운 운동프로그램이 실시되며, 오후가 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농구와 같은 자유 운동이나 체육실기 교육이 이루어진다. 주말에는 개인의 예약에 따라 체육관이 생일, 결혼등의 가족행사 장소로도 사용되며, 일요일에는 이곳에서 예배를 보기도 하여 이 시설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4. 커뮤니티 관련시설들의 문제점

기존 커뮤니티 관련시설들의 실태와 법규상의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역간 시설의 비형평성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의 경우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상주인구대비 문화시설의 설치가 매우 부족하고, 잘 사는 자치행정구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간 시설공급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부설로 운영되고 있는 재가복지봉사센터는 217개소이며, 이중 70개소가 서울에 있는 등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다. 재가장애인 순회재활서비스센터의 경우 총 24개 시설중 6개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으며, 기타 시·도에는 1개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2) 각 시설의 입지적 문제: 접근성 부족

지역단위로 잔재해 있는 커뮤니티 관련시설들은 서로 다른 곳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설의 운영도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이용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시설의 위치나 이용방법을 쉽게 파악할 수 없어서 시설에 대한 이용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자치구내 관련부서간 또는 인접자치구간 협조부재로 유사시설이 일부 지역에 근접 설치됨으로써 서비스의 지역적 편중과 이로 인한 소모적인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설이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 의한 접근성이 불량한 외곽에 치우쳐 입지함으로써 이용자의 접근성이 불량하다.

3) 각 시설간의 연계성·통합성 부족

근린시설의 운용을 다루는 개별 근린시설관련법들이 공동주택단지 근린시설기준에 대하여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갖지 못하여 근린시설의 효율적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근린시설이 개별적으로 분리·설치되어 시설의 통합운영에 따른 효율성을 살릴 수 없게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는 이용자의 호응도는 높으나 저소득층을 위한 직업훈련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주변환경과 입지여건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따라 서비스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자치구 차원에서 일부 공공문화복지시설을 복합화하여 설치하였으나 프로그램 등 기능상으로는 연계되지 않은 제한적 차원의 물리적 복합화에 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복합시설의 운영주체가 통합되지 않은 채 여전히 주관 부서별로 분리되어 있으며, 이들간에 시설과 강사진의 공유 등 상호 협조할 수 있는 연계성이 없어 복합화의 효과가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서울 시정개발연구원, 1999).

최근에는 공공에서 예산과 관리인력을 지나치게 감축한 결과 직원들의 업무량이 과중되어 복합화된 시설과 프로그램의 질적 관리가 어려운 상태에 있다. 또한 이들 시설은 담당하는 주관부서가 달라 상호유기적 협조없이 개별시설위주로 설치운영됨으로써 시설간 유사한 기능의 중복투자에 의한 낭비와 주민이용의 불편이 문제가 된다.

4) 활동프로그램 부족 및 전문가 부족

핵가족화, 노령화, 여성의 사회경제활동 증대 등 최근의 사회경제 추세 변화는 전혀 새로운 커뮤니티시설에 대한 선호를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의 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으나

각 시설별로 분화되어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오히려 가족을 다른 시설에 분산시켜 놓고 있다. 또한 시설들이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대동소이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어 이용자의 호응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또한 새로운 사회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과 이를 위한 전문가가 부족하다. 기존의 커뮤니티 관련 시설들이 다양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의 조성은 물론 적절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하나 대부분 시설이 물리적 관리자는 있으되 프로그램개발, 운영 전문가는 없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커뮤니티 관련시설들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진정으로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개념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진정한 의미의 커뮤니티 센터의 개발이 필요하다.

III. 커뮤니티 센터의 활동프로그램 제안

1. 커뮤니티 센터 활동프로그램 개발의 전제

커뮤니티 센터가 기존 커뮤니티 관련시설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커뮤니티 관련시설들과 연계하면서 그 기능을 보완·지지할 수 있는 체제하에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몇가지 기본조건중에서 본 연구에서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시간의 융통성 부여

기존의 공공문화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타, 도서관, 구문화원·문화의 집 등)이나 지역복지시설(여성발전센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 수련시설, 노인정), 행정서비스시설(동사무소), 공공서비스시설(우체국, 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대에 맞추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중에는 새벽이나 야간시간대의 이용이 어렵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개방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이용시간의 제한성은 이용자의 수를 제한하고 이용자를 특정계층(특히, 주부)에 한정짓게 되어 여타 다른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을 저조하게 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에서 시민의 특정 계층만 혜택을 보게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이용시간 대를 확장하고 주말이용도 가능하게 하여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이용대상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

지역의 공공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 대상자가 주부이고 그 밖에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노인이나 아동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성인 남녀나 청소년, 영·유아의 탁아 등에 대한 배려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따라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특정 연령층에게 편중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근린 지역사회 주민들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히 전 연령층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세대를 넘어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접근 가능한 거리에 위치 선정

지역복지시설과 동사무소 내의 주민자치센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용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시설로부터 도보거리 10-20분 정도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새천년준비위원회, 2000). 이는 시설의 대규모화로 자치구별로 시설 설치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으나 결국 이용자는 근거리에 위치한 거주자들로 한정되는 상황으로 인해 시설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따라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인지도, 이용도,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다. 즉 주민들이 심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필요할 때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로부터 도보거리 5-10분내에 소

규모로 핵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또한 각 해당 근린지역에 이미 존재하는 다른 커뮤니티 관련시설의 위치를 고려하여 한 자치구에 유사기능의 공공, 민간시설이나 커뮤니티 센터가 중복되어 배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그러나 근린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관련시설이 부재한 경우에는 규모를 조절하며 중규모, 대규모화 할수 있고 프로그램의 종류와 수도 조절하여 부가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2.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과 그 개념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센터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 앞서 설명한 개발의 기본전제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을 관리·행정(Public Service), 정보·상담(Communication), 건강·운동(Health), 여가·문화(Amenity), 교육·보육(Education)의 5가지로 유형화하였고 그 개념을 정리하였다(표 2참조). 이것은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기능에 대한 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 틀내에서 필수적인 핵심기능과 지역여건에 따라 추가될 수 있는 부가기능으로 나뉘어 각 커뮤니티 센터가 운영될 수 있다. 다시말해서, 핵심기능은 지역사회의 규모나 여건등에 관계없이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요소이고 부가기능은 기존의 지역사회 시설들과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는 요소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단지의 세대수가 1000세대이상의 중·대규모라면 이에 속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핵심기능뿐만아니라 부가기능의 운영이 가능하며, 500세대 이하의 소규모 단지에서는 〈표 1〉에서 제시한 5가지 기능의 개념하에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기능을 커뮤니티 센터내에 포함시키고 부가적인 기능은 기존 지역사회 시설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대치한다.

3. 기존 커뮤니티 관련시설의 기능별 활동프로그램 현황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센터의 5가지로 유형화된 기능에 따라 기존 커뮤니티 관련시설(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행정서비스시설, 공공서비스시설)의 프로그램 현황을 정리한 결과,[3] 커뮤니티 관련시설들은 그 고유기능이 무엇이건 간에 이용자의 여가·문화, 교육, 체육 등에 그 세부적인 프로그램 유형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도 상담이나 지역 복지 프로그램도 존재하나 크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계획되어 있는 프로그램중에서도 실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시설별로 수적 편차와 활용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의 경직성으로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의 조성이 되지 않은 점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관심부족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방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시설간의 협력·연계가 부족하여 상호 보완 역할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에 그 주요원인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은 지역주민의 변화하는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면에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한 점도 프로그램 활성화의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복합 서비스의 중심역할을 담당하면서 각 기능유형 별로 전 연령층 공동의 프로그램과 가족단위의 프로그램 그리고 각 연령층 별 프로그램을 고르게 분포시켜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센터내의 활동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시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으로 프로그램을 구체화하여야 한다. 또한 주민 요구에 좀 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4.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 가능한 기능별/계층별 활동프로그램의 제안

〈표 2〉에서 제시한 활동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센

3) 구체적인 시설별 프로그램을 기능별로 정리한 내용은 새천년정책연구보고서Ⅱ "뉴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모델 개발"(2000년 11월)의 224-227쪽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표 1>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과 그 개념

기 능	분 류	개 념
관리 · 행정 Public service	공공행정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공공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창구로서 기존의 동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각종 증명서 발급이나 민원 신고 업무를 수행하고 각종 관련서류를 배치하여 동사무소나 구청 방문 시 신속히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생활 편의를 위한 우편업무, 은행업무 등도 자동화 기기들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관리사무	기존의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가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에 포함되어 운영될 수 있다.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커뮤니티 센터 내에 위치하게 되면 주민들의 관리 사무실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여 관리업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서비스	커뮤니티 센터가 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제공되는 생리 · 위생공간, 조리공간, 수납공간 등을 의미한다.
정보 · 상담 Communication	정보	주민들의 정보화를 돕는 기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인터넷 서비스, 컴퓨터 사용 및 교육 등을 제공하며 주민의 생활이나 사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기기를 설치하여 편리성을 높인다. 또한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주민으로서 역할 수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연결한다.
	상담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상담 서비스나 생활 상담이나 개인문제 상담을 위한 기관이나 인물과의 연계를 제공하여 가정 생활과 지역사회생활에 긍정적 효과를 높인다.
	집회	지역 주민의 단체 활동이나 개인 활동, 각종 모임들을 개최할 수 있는 장(場)을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기르고 가족, 개인의 활동을 지원해 준다.
건강 · 운동 Health	건강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나 건강 검진 등의 기능을 보건소의 파견 업무 형식으로 순회진료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커뮤니티 센터 내에 통합함으로서 근거리안에서 기초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 및 증진에 기여한다.
	운동	누구나 원하는 수준의 체력관리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서비스 제공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옥내 · 외 체육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체력 증진에 기여한다.
여가 · 문화 Amenity	여가	지역 주민들의 공동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한 각 연령층별, 성별로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의 다양성과 융통성을 제공한다.
	문화	지역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전시회나 공연을 개최하고 영화를 상영하거나 현장의 답사 · 방문과 독서 및 도서대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자아성취에 기여함과 동시에 동년배 간 또는 지역주민간의 교류도 촉진하는데 기여한다.
보육 · 교육 Education	보육	커뮤니티센터의 프로그램 이용시나 보호자의 외출이나 기타 긴급상황시 단시간 동안에 영 · 유아를 위탁할 수 있는 탁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에게도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보호자 부재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	평생교육 차원에서 각 연령층에 적합한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전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청소년, 아동 등이 방과 후에 안정되게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표 2>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민대상별 운영 가능한 활동프로그램

대 상	기 능											
	관리 · 행정 Public Service			정보 · 상담 Communication			건강 · 운동 Health		여가 · 문화 Amenity		보육 · 교육 Education	
	공공행정	관리사무	서비스	정보	상담	집회	건강	운동	여가	문화	보육	교육
공통	· 대민행정(우편업무, 각종민원서류 비치 및 기관연결, 간단한 민원서류 발급 업무, 민원신고접수업무, 은행업무(CD기))	· 생활관리 · 운영관리 · 주택관리		· 단지소식지 발행 · 지역정보 및 자료제공 및 연계 · 소비자정보제공 · 환경관련정보제공	· 커뮤니티센터 프로그램 상담	· 지역관련각종 활동 · 가족행사 (생일잔치, 결혼식 등) · 각종 동호인 모임 · 이사온 가족 환영회	· 건강검진(보건소 파견업무)	· 체력관리 프로그램(휘트니스)	· 주민공동참여 여가활동(주민 소풍, 주민운동회, 노래자랑, 영화 상영 등)	· 전시회 · 문화 탐방 · 각종 공연 개최 · 독서 및 도서대여		· 소비자교육 · 환경교육
노인	· 자원봉사			· 컴퓨터교실	· 노인문제상담(건강관리, 가족관계, 노후적응, 생활상담 등)		· 건강검진 (노인성질환) · 물리치료	· 각종 운동/생활체육교실 (단전호흡, 요가, 에어로빅 등)	· 노래교실 · 각종 미술 강좌			· 언어교육강좌 (한글, 영어, 일본어 등) · 은퇴계획강좌 · 시사토론강좌
영유아							· 예방주사접종 (보건소 파견업무)	· 각종 체육/율동 교실	· 각종놀이교실 (구연동화, 이야기교실 등)		· 탁아프로그램 (시간제 운영)	
아동				· 컴퓨터교실	· 아동상담(교우관계, 가족관계, 학업 등)	· 각종동아리 모임 및 공연	· 예방주사접종 (보건소 파견업무)	· 각종 체육교실(옥외/ 지역사회체육시설 활용 프로그램들 포함)	· 각종미술교실 · 각종음악교실 (악기, 노래, 합창, 음악감상 등) · 각종 동아리 활동	· 주말/방학단체활동(문화유적답사, 박물관견학, 공연관람 등)	· 아동 놀이방	· 방과후 교실 · 공부방 프로그램 · 한문교실 · 외국어 강좌
청소년				· 컴퓨터교실	· 청소년상담 (교우관계, 이성관계, 가족관계, 학업 등)	· 각종동아리모임 및 공연		· 각종 체육교실(옥외지역사회 체육시설 활용 프로그램들 포함)	· 각종미술교실 · 각종음악교실 (악기, 노래, 합창, 음악감상 등) · 10대 주말 밴스 교실 (힙합, 테크노 등) · 각종 동아리 활동	· 영화상영 · 주말, 방학 단체활동(문화유적답사, 박물관견학, 공연관람 등)		· 공부방 프로그램
성인				· 컴퓨터교실 · 업무처리(OA기기사용)	· 성인상담(건강, 스트레스 조절, 직장문제, 진로문제, 가족관계, 부부관계, 이성문제, 자녀관계 등) · 생활상담(주택상담, 법률상담 등)	· 각종동아리 모임 및 공연 · 직원회의	· 건강검진(암검진, 혈압체크, 당뇨체크 등) · 건강검진	· 각종 체육교실	· 각종미술교실 · 각종음악교실 · 각종 동아리 활동 · 여행 · 각종취미교실	· 영화상영 · 주말단체활동 (문화유적답사, 공연관람 등) · 각종공연개최		· 부모교육 · 사회관계형성교육 · 시사토론강좌 (정치, 경제, 지역사회 현안 등)
센터 직원	· 프로그램 기획 개편, 시설에 관한 워크샵				· 직원상담(문제점, 개선점 등)							· 직원교육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되는 활동프로그램은 커뮤니티 센터 내에서 뿐만아니라 지역 사회의 각종 시설들과 연계하여 제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터의 5가지 기능과 사용자 계층별로 운영 가능한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정리된 것이다.

1) 전 연령층(공통)을 대상으로 한 활동프로그램

희망하는 근린 시설유형에 대한 의견 조사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근린 시설 유형은 전 연령 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문화 교양시설, 실내체육시설, 문고 등이었다(국토개발연구원, 1996). 이는 커뮤니티 관련시설이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에만 치우쳐서는 안되고 전 연령층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고 가족단위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각 기능별로 계획한다. 먼저 관리·행정(Public service)기능에서는 기존의 동사무소나 우체국, 은행 등에서 행해지는 대민 행정 중에서 시간제로 담당직원이 배치되거나 또는 담당 직원이 없이도 처리될 수 있는 업무가 운영 가능하다.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가 커뮤니티 센터에 통합되어 운영 될 수 있다.

지역과 생활에 관련된 각종 정보의 제공과 관련기관 연결과 같은 정보 기능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수행되어야 할 필수적인 기능 중의 하나이다. 커뮤니티 센터가 나눔의 장이 되는 데 기본이 되는 정보·상담(Communication)기능에서 작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크게는 지역의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유하게 함으로써 자칫 정보에서 소외되고 이로 인해 소극적인 지역주민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커뮤니티 센터의 방문객이 센터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집회의 장소로써 주민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야 하며, 개인이나 가족 단위의 각종 행사도 치를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이러한 행사의 개최는 지역을 이해하고 이웃의 소식을 알고 기쁨과 슬픔 등을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운동(Health)기능 측면에서는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소의 파견사업 형태로 커뮤니티센터에서 건강진단, 예방접종, 원격진료를 포함한 기타 진료 사업이 수행되도록 한다. 또한 실내체육실의 체력관리 프로그램은 시간대별로 사용자 계층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휘트니스 설비들도 어린이, 노인, 여성 등의 신체 조건에 적합한 것들로 배치하여 참여를 촉진시킨다.

여가·문화(Amenity)기능은 문화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은 거의 획일화되어 있다. 커뮤니티 센터의 여가·문화 프로그램은 지역주민이 강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공동참여와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데 그 주안점을 둔다.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지역별, 상황별, 계절별 등 갖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계획하되, 지역시설과 중복은 피하도록 한다.

보육·교육(Education)기능에서는 건전한 지역주민으로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전문가 강연이나 시청각 매체 등을 통하여 시행한다.

2) 노인층을 대상으로 한 활동프로그램

노인층은 지역주민들 중에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집단이며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모든 일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기 쉬운 특성을 가진다. 노인층이 다른 연령층과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주민으로써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대간의 교류, 정보의 교류를 촉진하고 여가선용과 건강관리를 통해 노후의 삶이 의미있을 수 있도록 커뮤니티센터의 활동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노인들이 이전의 직업에서 쌓은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활용하여 자원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히 이전에 행정관련 업무에 종사하셨던 분이 있으면 커뮤니티센터의 공공행정 업무에 자원봉사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정보·상담(Communication)기능에서는 노인층이 정보에 소외되고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컴퓨

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서신 교환, 인터넷을 통한 정보획득과 오락 등도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노년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기관과 연결해주거나 지역주민들 중 상담이 가능한 사람과 연결하여 인간적인 관계형성과 상담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한다. 여가·문화기능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간단한 놀이와 취미 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건강·운동(Health)기능에서는 단순 오락성의 여가보다는 동년배간 우애와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고 자기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회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가장 호응도가 높은 물리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계절이나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행할 수 있는 실내스포츠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보육(Education)기능에서는 최근에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교류나 토론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노후 계획이나 언어교육 프로그램도 운영가능하다.

3) 영·유아 대상으로 한 활동프로그램

영·유아의 보육기능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9년 9월에 2000세대 이상 시 유치원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규모가 2000세대 이하인 곳에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규모나 수적인 면에서 단지의 보육을 원하는 어린이들을 감당할 수준에 못 미칠 수도 있게 되었다. 실제로 공동주택단지 입주가구는 외출 또는 출근(맞벌이 가구)시 자녀보육을 주로 친척과 이웃에 의존하고 있으며, 유아자녀가 있는 공동주택 거주가구는 자녀의 탁아문제로 외출을 포기하거나(13.9%), 보호자 없이 유아자녀만 집에 둔 체 외출을 하는 경우(14.3%)에 달하고 있어(국토개발연구원, 1996) 안전한 시설 내에서 유아자녀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시간제 탁아공간의 수요가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연령별 여가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30대 이하의 주부는 '돌보아야할 어린 자녀 때문에'(42.1%)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가정주부의 여가활용이라는 측면에서도 단지 내 탁아공간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근린지역의 영·유아 시설이 부족할 시에는 부가기능으로 커뮤니티 센터 내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설치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에 대한 핵심기능은 시간제로 주민의 필요시에 영·유아를 위탁할 수 있는 탁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센터의 보육·교육기능에 속하게 된다. 또한 어린이의 체육활동, 특활활동, 어린이 보건·위생을 위한 건강 검진 등이 센터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바람직 할 것이다.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활동프로그램

아동, 특히 도심에 거주하는 아동은 편히 놀고 여가시간을 활용할 장소가 부족하다. 아동들의 운동, 여가, 문화, 교육 등을 위하여 장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것은 어린이에게도 위험할 수 있고 부모에게도 불안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근린지역 사회의 어린이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최일선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

정보·상담(Communication)기능에서는 컴퓨터 교육과 사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동의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래 친구들끼리의 각종 동아리 모임과 공연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장소 제공과 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건강·운동(Health)기능에서는 공동주택단지 내 체육시설이나 지역사회의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옥외에서의 체육활동과 각종 오락 게임 등을 진행하고 지역사회 실내 체육시설에서는 다양한 실내체육 활동을 진행한다.

여가·문화(Amenity)기능에서는 나이에 적절한 다양한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각자 자기 취미에 맞는 특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여가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히, 방과후에 부모가 집에 없는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숙제지도, 예습·복습, 준비물 챙기기 등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스스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공부방 프로그램도 요구된다.

5)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활동프로그램

청소년은 갈 곳이 없다. 지역사회의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의 대부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고 오직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 관련 여가·문화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지만 종합복지관이나 청소년 수련시설의 위치나 이용시간대가 청소년의 입장에서 볼 때 편리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스트레스 해소 등을 위한 활동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정보·상담(Communication)기능에서는 컴퓨터 교육과 사용을 통해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건전한 이성교제나 취미활동, 자기발전 등을 위한 동아리모임과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운동(Health)기능에서는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각종 체육교실을 운영한다. 청소년을 위한 여가·문화(Amenity)기능에서는 주말과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휴식과 재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학 프로그램, 하계캠프 등을 통해 많은 문화 정보와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설한다. 보육·교육(Education)기능에서는 방과후나 새벽, 야간에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공부방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업 증진에도 기여한다.

6) 성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 프로그램

성인들 중 취업여성이나 남성은 자신의 발전이나 여가·취미활동을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혹은 시간대를 맞추어 먼 거리를 움직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이웃을 사귈 시간도 부족하다. 따라서 커뮤티니 센터에서는 그들의 여유시간에 이웃교류, 스트레스 해소, 건강관리, 취미활동, 문화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활동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현대인의 과중한 업무로 주말이나 야간시간대에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을 시에 커뮤니티 센터에 있는 컴퓨터나 팩시밀리,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업주부에게는 컴퓨터 교육과 사용에 대한 프로그램을 통해 컴퓨터를 매체로 한 각종 정보이용을 돕는다. 또한 성인에게 주요 관심사가 되는 문제들을 상담하거나 서로 토의 할 수 있는 상담 및 집단토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지역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에 관련된 상담이 가능하도록 관련 기관과 연계시켜주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성인이 되면 좀 더 뚜렷한 자신만의 취미가 형성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각종 동아리를 결성하여 취미생활을 증진시키고 이웃교류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건강·운동(Health)기능에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암 검진, 혈압체크, 당뇨체크 등)이 센터 내에서 실시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각종 체육프로그램, 특히 직장인을 위한 새벽, 야간, 주말 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여가·문화(Amenity)기능에서는 직장이나 사회활동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나 긴장을 풀고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가·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주말을 이용한 나들이나 여행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교육(Education)기능에서는 가정생활, 이웃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자신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과 시기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의 시사성 있는 문제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가능하다.

7) 센터직원을 대상으로 한 활동프로그램

센터의 직원은 정규근무, 시간제 근무, 자원봉사 등의 형태로 근무하게된다. 직원의 수나 성별, 연령, 직책 등은 커뮤니티 센터의 규모, 재정상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환경 등에 차이가 있겠으나 직원들의 사기를 증진하고 센터의 운영과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원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개발, 개편이나 센터 내의 환경개선, 주민들의 참여증진을 위한 꾸준한 워크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직원 후생차원의 건강검진도 시행되고 정기적, 비정기적인 교육도 이루어져 직원과 이용 주민간의 이해와 화합이 잘 이루어져 센터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주민들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통합적인 서비스의 장(場)으로서의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가능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커뮤니티 센터의 기능을 5가지(관리·행정, 정보·상담, 건강·운동, 여가·문화, 보육·교육)로 유형화하였고 각각의 기능별로 사용자 계층(공통, 노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센터직원)에 적합한 활동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활동프로그램은 지역사회의 규모 즉 생활권의 규모에 따라 커뮤니티 센터의 핵심기능을 기본으로 필요에 따라 부가기능을 추가하면서 고유의 프로그램들을 구상할 수 있다.

다시말해서, 커뮤니티 센터의 활동프로그램은 그 기능별로 기본적인 개념이 존재하나 그 개념이 반영된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획일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커뮤니티 센터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 지역 공공·민간 시설의 현 상황을 파악하여 이들의 보완 역할을 해야하고 시간대도 필요에 따라 24시간 이용 가능한 시설로 하여 그야말로 확장된 생활 공간의 개념이 도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커뮤니티 센터 별로 필요한 활동프로그램의 종류와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감사·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좀 더 궁극적으로는 국가차원에서 양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협회(Community Center Association)를 형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부를 두어 커뮤니티 센터의 지도자(Community Center Leader)를 양성할 수 있는 전문가 과정을 마련하고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인력이 커뮤니티 센터의 담당직원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의 확립도 고려해 볼만하다.

커뮤니티 센터의 활동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요구에 민감해야 한다. 커뮤니티 센터는 주기적(1-2년마다 한번씩)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체 평가(Self-assessment)를 직원들과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후속 프로그램 개발·조정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커뮤니티 센터의 개발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동프로그램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없고 물리적 여건, 즉 지리적 여건이나 공간규모, 공간배치, 공간의 융통성 있는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규의 개정·보완이 뒤따라야 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인 커뮤니티 센터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그에 앞서 그 조직과 운영체계에서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만 한다.

첫째, 공급방식과 운영주체의 문제이다: 누가 운영주체가 될 것인가? 커뮤티니 센터를 공공 주택 신규 공급 시에는 분양아파트의 공유면적에 포함시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택하고 센터의 운영은 민영화하여 입주민과 전문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독주택 단지는 공동주택 단지와 상황이 달라 주민들의 공유면적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공공기관의 성격을 띄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건물, 직원, 예산을 제공할 수도 있다. 단 비영리 법인에서 커뮤니티 센터의 설치를 희망한다면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을 검토한 후 센터의 설치를 위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운영주체가 공공이건 민간이건 간에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중 공공재의 성격을 띄고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예를 들어, 탁아서비스나 공공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인력 및 예산지원이 해당 관할 부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비용부담의 문제이다: 커뮤니티 센터가 설립되기 위한 건축비는 공동주택의 신축 시에는 분양가에 포함시켜 수익자 부담 형식을 취하고 단독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을 마련하여 부지매입 비용을 포함한 건축비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 운영시에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 직원 인건비, 비품 및 기자재 구입 및 관리, 건물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충담하기 위해 이용자의 100퍼센트 자부담(유료)으로 할 것인가? 혹은 커뮤니티 센터를 지역사회의

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소요비용을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이용자의 자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방식을 택할 것인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용방식의 문제이다: 커뮤니티 센터가 주민들에게 개방되는 것은 기본 전제이긴 하나 공동주택단지별로 커뮤니티 센터가 공급될 시에는 단지 입주민과 단지 외부의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 사이에 사용에 대한 차별성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즉 회원제 방식을 채택하여 단지 주민들에게 회원으로 가입할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지고 유료 프로그램의 이용 시에는 단지 외부지역 주민이 이용할 때와는 이용비에 차등을 두어 단지주민에게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넷째, 직원 고용방식의 문제이다: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을 담당할 직원들은 누가 될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고용될 것인가? 커뮤니티 센터의 특성상 시간제로 해당 활동프로그램의 개설 때에만 고용될 수 있는 직원도 있고 센터의 행정업무를 맡거나 프로그램을 조정(Program Coordinator)하거나 시설의 관리를 책임 질 정규 근무직원들도 필요하다. 이러한 직원들의 수와 고용방식은 각 커뮤니티 센터의 규모별로 차이가 있게된다. 지역사회 주민들을 활용하여 자원봉사자 형태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의 종류를 선택하여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센터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동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정규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커뮤니티 센터는 앞으로 그 설립가능성과 효과 면에서 꾸준한 연구분석이 필요하다. 커뮤니티 센터의 활동 프로그램이 현실화된다면 본 연구에서 활동프로그램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던 내용이외에도 지역특성이 고려된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존 커뮤니티 관련시설의 프로그램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지역사회의 주어진 여건에 맞게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획설계를 통해 커뮤니티 센터를 실제로 운영해 봄으로써 점차 발전적인 방향의 커뮤니티 센터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21세기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고명화(1997). 공공보육시설의 이용 특성 및 적정배치에 관한 연구: 서울시 관악구 국·공립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태익(2000). 한국 청소년 수련체계에 관한 연구-수련시설 운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국토개발연구원(1996). 공동주택단지의 근린시설 기준에 관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1997).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단지 계획 지침 연구.

김대욱(1997). 커뮤니티 의식 제고를 위한 공동주택단지 근린시설의 배치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석(1999). 우리나라 사회복지관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사회학과 20주년 기념 논문집, 159-193, 1999.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9a). 공공문화복지시설의 복합화 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9b). 서울시 지역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7). 잠재적 지역 문화시설 활성화 방안 연구 : 동사무소, 학교,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새천년준비위원회(2000). 뉴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모델 개발, 새천년정책연구보고서Ⅱ.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1995).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 미래주택 단지개발의 방향, 진솔전자출판.

이연숙(2000). 공유공간의 필요성.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9-30, 연세대학교 출판부.

이연숙(1995). 미래주택과 공유공간. 경춘사.

최찬환(2000). 공유공간 구축을 위한 법제적 고찰. 밀레니엄 커뮤니티 센터. 31-57. 연세대학교 출판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6). 사회복지 이용시설 서비스 종합화 방안.

Caraccia, M & Vassiliades, J (1970). *Design Development of a Community Center, Design and Community* edited by Alpaugh, D. Student Publication of the School of Design, North Carolina State Univ.. 165-173.

Huntington, S.H.(1985). *Planning a Community Center,* NRC Educational Materials Project, Iowa State Univ.. Ames Iowa.

Norwood, K & Callenbach, E (1995). *Rebuilding Community in America.* Shared Living Resource Center.

ITO Takao(伊藤 隆雄), 外 2人(1996). An Analysis on Actual Cirumstances in Complex Facilities in Tokyo-A Study on Architectual Complex of Community Facilities Part I. *日本 建築學會大會學術講演梗概集98.* 133-134.